

## 현대 한국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 연구

방은수\*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의 몸 간의 관계망 속에서 현대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인공의 몸이 변신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어떤 식으로 접속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몸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변신에 담긴 몸의 욕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페쇠의 주체 구성 방식에 따라 동일화, 반동일화, 비동일화의 견지에서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아동이 변신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몸으로 바뀌고자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분석 결과,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몸', '세속화된 성인과 타협을 모색하는 몸', '자본주의화된 상징적 세계와 결별하는 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몸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변신 모티프와의 연결점을 모색하면서 판타지 동화를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의 성과가 아동 문학 주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주제어: 판타지 동화, 페쇠(Pecheux), 변신 모티프, 변신, 동일화, 반동일화, 비동일화, 몸

목 차

1. 변신하는 아동, 어떤 몸이 되기를 꿈꾸는가?	3. 현대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 분석 결과
2.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아동의 변신에 담긴 몸의 욕망	4. 마치며

## 1. 변신하는 아동, 어떤 몸이 되기를 꿈꾸는가?

현대 사회는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수단이자 목적이 되는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자본을 매개로 한 합리적 교환행위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교환가치 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문화와 지식에까지 자본주의의 논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자본은 교환 수단을 넘어서 대상의 가치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가족 관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sup> 가족관계에 투영된 자본주의 논리는 특히 아동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덕목은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있는 유용성이다. 그런데 아동은 아직 자본주의적 유용성이 확실치 않은 존재이다. 또한 무한한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아동은 현대 사회에서 자본을 창출할 수

<sup>1</sup> 나병철은 들뢰즈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를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서로 공명하는 '오이디푸스 구조'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오이디푸스 구조의 시대는 자본이라는 메타기표의 통제 아래 사회와 가족이 서로 분화되면서 겹쳐지는 사회이다. 즉, 가족은 사회 체계와 분리된 사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회 체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작동하는 장소가 된다.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24~26면.

있는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원한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아동의 미래 지위는 사회적 유용성의 척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가 아동을 자본주의 사회에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데 열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동은 어떻게 주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선 아동은 세속화된 성인들의 세계에 대항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그러면 아동은 사회적 동일화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신에 가족의 울타리가 없는 데서 오는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은 이러한 위협을 감수할 만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아동은 공적·사적 영역을 통제하는 사회적 질서에 대해 완전하게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결국 아동은 사회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권력 관계를 재편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결국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만다.<sup>2</sup> 따라서 자본주의와 공명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아동은 주체적인 삶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한국 판타지 동화에서 주인공의 자아에 가해지는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응하는 환상적 표현이 아동 몸의 변신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변신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다. 현대

2 가족 관계 내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는 아동의 사적 영역을 통제하는 법이다. 권력의 은유로서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애정과 증오 혹은 동일시와 반항 등 양가감정의 대상이다. 그런데 아동은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아동의 내적 갈등은 심리 상태를 긴장 상태로 내몰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아동은 양가감정에 따른 내적 갈등의 해소는 간단하다. 그것은 대체로 어린이의 자아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강화하고, 증오의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아동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억압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것은 거세에 대한 두려움이다. 거세 공포는 남근의 상실이며, 자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근거의 상실을 뜻한다. 따라서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금지하는 아버지의 법(사회적 질서)을 내면화할 때, 아동은 비로소 거세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가족로맨스』, 『프로이트 전집』 9권, 열린책들, 1996, 55~62면.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주체로 아동을 호명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이 작동한다.<sup>3</sup>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기획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르는 저항적인 움직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아동의 몸이 가지는 수동성과 능동성이라는 이중적인 면모와 상응한다. 아동의 몸은 각종 사회문화적 담론이 새겨지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주체 고유의 근원적인 욕망이나 본능이 표출되는 장소이자, 정신적인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기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먼저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아동의 몸이 자본주의화된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봐야 한다.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아동 주인공이 자의든 타의든 변신을 통해 어떠한 몸이 되고자 시도 했는지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 문학 연구 담론에서 변신 모티프는 중요한 주제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축적하여 왔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는 구분해 보면, 환상성과의 관계 속에서 변신 모티프를 탐구한 연구<sup>4</sup>, 동화 작품에 수용된 변신 설화에 대한 연구<sup>5</sup>, 변신 유형의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sup>6</sup>, 전래동화 속 변신모티프에 대한 연구<sup>7</sup>, 교육적 관점에서 변신 모티프에 접근한 연구<sup>8</sup>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변신에 대한 해석의 풍요로움

3 다이안 맥도웰,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도서출판 한울, 1992, 40~42면.

4 김수철, 「한국 현대 동화의 환상성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자연, 「한국 판타지 동화의 환상성 구현 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영미, 「한국동화의 변신모티프에 내재된 원형성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5 이재경, 「〈취 둔갑 설화〉와 『수일이와 수일이』의 교육적 성격 비교」,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기중, 「판타지 동화의 구전설화 수용 양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집, 2008, 395~421면.

6 유은영, 「한국 창작동화의 변신 유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 이은선,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변신모티프의 구현 양상과 의미」,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성숙, 「한국 전래동화 연구-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2000.

8 최금숙, 「한국동화의 변신이야기가 갖는 교육적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권경옥, 「변신 모티프 동화의 가짜 연구 : 가짜의 유형에 대한 아동 독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강엽, 「동화읽기의 한 패턴: 자기찾기」, 『동화와 번역』 7집,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4.

을 제공해주었으며 더불어 변신이 지니는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어 단초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변신 모티프 연구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작 변신의 주요 대상인 '몸'에 대한 의미적인 탐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물에서는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적 속성과 아동의 몸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변신의 의미에 주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과학적 이성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변신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판타지는 현실주의 너머의 또 다른 인식을 보여주면서, 다시 현실 세계를 겨냥한다. 따라서 변신의 비현실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화된 현실 사회에서 아동 몸의 변신이 지니는 문학적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창작된 현대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의 의미를 아동의 몸과 자본주의적 현실 간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아동문학 주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현대 아동 문학에서 아동의 변신에 담긴 몸의 욕망

### 1)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몸

아동문학에서 '아동'의 존재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미학적 의미를 지닌다. 아동은 어른이 아니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양가적인 존재이다. 아동 존재의 양가적 특성은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정체

성은 미결정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순간 현실 세계와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아동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동이라는 기표에는 ‘미래의 희망’이면서 동시에 성인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9</sup> 따라서 아동의 존재적 특성은 각종 사회문화적 압력 속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아동 주인공의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존재적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몸’이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미완성의 육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문화적 담론의 구조 속에서 몸은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근대 이후 인간의 몸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것’일 때 비로소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근대 초기에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노동이 가능한 몸’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현대에는 가정, 학교를 비롯한 사회조직이 강요하는 ‘일상적 규칙이 내면화된 몸’이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sup>10</sup> 또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사회 전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학력, 예술적 기능, 아름다움을 갖춘 몸은 막대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몸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적 자본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동의 몸이 아동과 성인간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9 홍성태, 「근대화 과정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당대비평』 제25호, 생각의 나무, 2004, 245~246면.

10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214~222면.

사회에서 아동의 몸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은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기 이전까지, 성인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이 성인에게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받으려면, 성인이 내면화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몸은 현대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가치 체계로 예측되고 만다.

이처럼 아동의 둘러싼 주변환경은 그를 자본주의적 질서에 동화시켜 그것에 접속시키려는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동한다. 그 메커니즘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가족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공명하는 또 다른 사회 단위이다.<sup>11</sup> 이러한 가족 관계 속에서 아동의 몸은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진다.<sup>12</sup> 이를 위해 아동은 학원에 가야하고, 자신의 신체적 욕구를 감시당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눌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대 사회의 가족’이라는 기표에는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의 의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어린이가 매일 대면하는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가 작동하는 사회의 축소판에 다름 아니다.<sup>14</sup>

문제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아동이 겪는 불안이다. 아

11 나병철, 위의 책, 24~26면.

12 강미라, 『몸, 주제, 권력』, 이학사, 2011, 156면.

13 가족관의 변화는 근대 이후 형성된 가족 윤리와 연관된다.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가족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 단위이자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가족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라, 가정은 아동을 근대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규율화된 주체 양성을 위한 사회화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가족-사회-국가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거의 사라졌다. 대신에 자본주의의 논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자본의 논리와 개인의 추구하는 삶에 따라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윤정, 「'스위트홈'에 대한 환상과 근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모성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31면.

14 판타지 아동문학의 대표적인 서사문법이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로 인해 성장의 장애를 겪는 아동 주인공이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된 가족의 기능과 무관치 않다.

동은 합리성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질서를 완벽하게 내면화하지 못한 존재이다. 아동은 이질적인 성인 세계와 대면하면서 일상적으로 낯선 두려움을 겪는다.<sup>15</sup> 아동이 그 불안감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는 사회적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면서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억압당하면서 본연의 생명력을 서서히 상실한다.

그렇다고 아동의 몸은 사회적 규율이 각인되는 수동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sup>16</sup> 인간은 타인의 행위 대상이 되는 존재인 동시에 스스로 행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sup>17</sup> 아동의 몸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동은 몸을 매개로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환경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재구성해 나가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sup>18</sup> 하지만 아동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는 몸의 욕망의 능동적 실현을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은 세속적인 자본주의를 내면화한 성인 세계와 대립하는 가운데 주체적인 삶을 모색해야만 하는 양가적인 상황에 놓인다.

## 2) 한국 아동 문학에서 변신의 의미

변신 모티프는 고래를 통틀어 다양한 서사물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고대인의 상상력이 투영된 신화나 설화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등장한 동화와 현대 소설에서도 변신 모티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신 모티프의 장구한 역사를 고려해 볼 때, 그것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이 끊임없

---

15 다만 아동의 낯선 두려움은 친절하게 성인 세계로 인도하는 좋은 아버지에 의해 감소된다. 반면에 금지만을 강요하는 나쁜 아버지의 아동의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16 홍은영, 『푸코와 몸에 대한 전략』, 철학과 현실사, 2004, 94~96면.

17 강미라, 위의 책, 23면.

18 강미라, 위의 책, 106면.

이 갈구하는 욕망이 담겨 있다. 그 욕망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현실을 변혁하려는 문제의식이자, 또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변환하려는 의지의 발로이다. 이에 따라 각종 서사물에서 인물의 변신은 대체로 폐쇄적인 현실에 대한 초월이나 지양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것은 곧 해방 및 자유의 사상과 연결된다.<sup>19</sup>

문학 작품 속 인물의 변신은 위의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면서도, 시대에 따라 의미 변화의 굴절이 나타난다. 고대 서사물과 현대 서사물에서 인물의 변신은 일정 부분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의미상 간극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변신이 문학 작품을 배태한 그 시대의 세계관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여 서사물 속 변신에 담긴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서사물에는 신화, 설화, 고소설 등이 해당된다.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는 고대 서사는 대개 ‘신성한 세계관’을 담고 있다. 신성한 세계관이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힘을 믿는 인식 구조”<sup>20</sup>를 뜻한다. 이에 따라 신화나 영웅 설화, 고소설에서 변신은 영웅적 권능의 발현이나,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득적 능력의 표출, 혹은 재생적 순환의 과정에서 보다 나은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시련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반해 현대 서사물에서 변신의 의미는 고대 서사물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대 서사물인 소설의 경우, 설화 및 고소설과 달리 현실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에 따라 소설 속 인물은 현실의 모순과 대결하는 개인의 불안정한 내면을 드러낸다.<sup>21</sup> 인물 내면의 동요는 합리적 현실<sup>22</sup>에 억눌려 있던 무의식적 욕망이 고양된 상태이다.<sup>23</sup> 이는 현

19 이재선, 『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66면.

20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 42~43면.

21 나병철, 위의 책, 119~120면.

대 소설의 환상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환상은 의식의 수면 밑에 잠복해있던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이다. 무의식적 욕망이 합리적 현실에 균열을 만들며, 그 균열 속에서 의식적 사고로 재단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생성시킨다. 이는 세속화된 현실 세계에 대한 반발이자, 전복이며 폭로이다.<sup>24</sup> 이때 변신 모티프는 환상성을 드러내는 주요 기법으로 차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소설에서 인물의 변신은 근대 문명의 폐해나 지배 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전복,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타자의 불안 등을 드러낸다. 따라서 설화나 고소설에서의 변신이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반해, 현대 환상문학에서 변신은 전략의 의미를 띤다.<sup>25</sup>

그렇다면 한국 아동문학에서 변신 모티프는 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변신 모티프는 성인문학과 마찬가지로 환상성을 실현하는 한 방식이다. 그런데 환상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아동 문학 작품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동 문학 작품의 주요 독자인 아동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은 세속화된 성인의 세계에 완벽하게 진입하지 않은 존재이다. 이에 따라 아동은 경직된 어른과 달리 다소 확장된 차원에서 환상에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예컨대, 주인공이 다소 신이(神

22 근대 이후, 인간은 이중화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사유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중성을 지니는 것처럼, 현실 역시 물리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로 구분된다. 물리적 현실에는 의식에 새겨진 합리적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면, 심리적 현실에는 무의식의 차원과 연관되는 삶의 영역으로 몽상, 백일몽, 꿈 등이 해당된다. 인간은 평소 물리적 현실의 재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심층에는 여전히 심리적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던 중 인간의 의식적 사고로 담아낼 수 없는 심리적 현실이 고양되면, 인간은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04, 17~20면.

23 나병철 위의 책, 24~25면.

24 환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로지 잭슨(Rosie Jackson)의 논의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로지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화회 역, 문학동네, 2001, 235~236면.

25 프랑수아 레이몽, 고봉만 외 역, 『환상문학의 거장들』, 자음과 모음, 1993, 137면.

異)한 존재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문학에서 변신 모티프 또한 다소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환상성을 실현하는 데 활용된다.<sup>26</sup>

둘째, 한국 아동문학 작품에 수용된 변신모티프에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일제의 식민 통치, 남북 분단, 6·25 전쟁, 4·19 혁명, 군사 독재, 민주화투쟁 등 역사적 무게를 담은 일련의 사건들을 단기간에 겪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은 고통과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이에 따라 아동문학 작가들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아픔을 다룬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변신모티프는 비극적인 시대적 상황으로부터의 해방 내지 극복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sup>27</sup>

그런데 변신에 대한 종래의 이론적 논의는 최근 20년 동안 창작된 작품들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가 남긴 시

26 변신 모티프는 아동문학의 낭만적인 환상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물의 변신이 동양사상적인 신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부 작품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인물이 변신하는 양상이 드러나곤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채봉의 동화 『천년학』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을 통해 경험의 확장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작품으로는 강소천의 『꽃이 된 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변신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환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관련 작품으로는 황선미의 『섬마을 몽당개비』, 권정생의 『뱀태기, 죽태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7 대표적인 예로 강소천의 『그리운 메아리』와 권정생의 『뱀태기 죽태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운 메아리』에서 주인공의 꿈 속에 등장하는 박 박사는 새로 변신한다. 새로 변신한 박 박사는 한국 전쟁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러 간다. 여기서 변신은 분단 현실이 허락하지 않은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자, 현실 체제로부터의 해방 및 자유를 뜻한다. 이는 『뱀태기 죽태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 작품에서는 굴곡진 시대 상황으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인물들은 한국 전쟁 때 다리를 잃은 사마귀 할아버지, 일제 시대에 위안부로 끌려간 삼층 병실의 할머니, 원자폭탄을 맞아 50년 동안 벽장 속에서만 지낸 인숙이다. 사람으로 변신한 늑대할머니는 자기희생을 통해 이들에게 남겨진 시대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의 평화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사람으로 변신한 늑대할머니는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함윤미, 『강소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7~8면; 홍성식, 『아동문학의 환상성 실현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1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263~265면.

대적 과제를 작품에 담아내려는 작가의 의지가 다소 열어졌다. 둘째, 작가들이 작품에서 이상화된 아동에서 벗어나 실제 아동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 그것에서는 환상성을 드러내지만,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내적 질서는 현실 세계의 합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현대 판타지 동화가 장르적으로 소설의 서사 문법에 더욱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변신의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변신 모티프와 관련하여 판타지 동화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가족 관계의 변화이다. 근대 문학 형식으로 아동문학이 성립한 이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동화 작품 속에서 부모는 아동 주인공에게 대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근대 이후에도 지속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부모는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었고<sup>28</sup>, 전쟁과 분단 이후에는 상실의 대상이었다.<sup>29</sup> 이에 따라 과거의 작품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거의 없거나, 다소 미약한 형태로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판타지 동화에서는 아동과 부모 간에 다소 격화된 갈등 관계가 펼쳐진다. 갈등은 아동이 성인들의 지배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부모는 자신들이 내면화한 세속적인 자본주의의 논리를 아동에게 강요한다. 이를 위해 버릇 고치기처럼 아동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신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시도한다.<sup>30</sup> 만약 아동이 반발할 경우, 부모는 더욱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내면화한 자본주의적 사회 규범을 아동의 몸에 새긴다. 동일한 맥락에서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도 과거와 달리 아동의 욕망을 억압하는 대립적인 가족관계가 두드

28 윤소희,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3면.

29 함윤미, 「강소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3면.

30 신현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Ⅱ」, 『초등교과교육연구』21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5, 63면.

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신의 문학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신이란 말 그 자체로 ‘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변신의 주요 대상이 신(身), 다시 말하면 ‘몸’임을 뜻한다. 그런데 아동의 몸은 성인들이 가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면모만 지니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아동은 변신을 통해 현실의 몸에서 벗어나 새로운 몸이 되려는 욕망을 표현 혹은 표출한다. 따라서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아동의 변신은 성인의 사회문화적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페쇠(Pecheux)의 논의는 사회문화적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변신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페쇠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천 과정에서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을 세 가지 기제로 나누어 설명한다.<sup>31</sup> 그것은 동일화(Identification), 반동일화(Counter-identification), 비동일화(Disidentification)이다. 동일화는 주어진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착한 주체들의 양식이다. 반면에 반동일화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주어지는 정체성에 반발하지만, 뒤로는 그와 타협을 모색하는 주체 양식이다. 마지막으로 비동일화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저항 내지 거부하는 주체 양식이다.

페쇠의 논의에 기대어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나타나는 변신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아동의 몸이 변신을 통해 세속화된 자본주의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느냐에 따라 변신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동일화, 반동일화, 비동일화와 상응한다. 동일화의 견지에서 변신은 아동이 성인들의 질서 및 기대에 부응하는 몸으로 바뀌는 것

31 다이안 맥도웰, 『담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한울, 1992, 53~54면.

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은 『마법의 빨간 립스틱』과 『수일리와 수일리』이다. 동일화와 상반되는 의미의 변신을 상징할 수 있다. 아동의 변신이 성인 세계의 사회문화적 압박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화해를 모색하는 몸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반동일화로 볼 수 있다. 반동일화로서의 변신이 드러나는 작품에는 『영모가 사라졌다』와 『변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세속적인 성인 세계에 편승을 시도하지만, 중국에 그 세계에 대해 거부 내지 저항하는 식의 변신을 담은 작품이 있다. 이는 비동일화로서의 변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관련 작품으로는 『벌레로 만들어 드립니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변신 모티프를 수용한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드러나는 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3. 현대 한국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 분석 결과

#### 1)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몸

『마법의 빨간 립스틱』(이하 『립스틱』)은 편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두 남매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주로 미야를 초점화자로 삼아 사건이 전개된다. 미야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야와 호야를 돌봐주지 못한다.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미야는 나이에 비해 일찍 철이 든다. 반면에 동생 호야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는 철부지이다. 어머니가 늦게 올 때 마다, 미야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미야는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다. 호야에게 미야는 그저 열 살짜리 누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되기를 소망한다.

미야의 소망은 우연히 획득한 립스틱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야는 아픈 호야를 위해 약을 사러가다가 문제의 마법 립스틱을 줌게 된다. 립스틱은 미야에게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그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면 미야는 어른이 되고, 지우면 다시 아이가 된다. 이에 따라 빨간 립스틱은 미야에게 어른으로 변신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립스틱을 통해 어른이 된 미야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예를 들면, 엄마로 변신한 미야는 아픈 호야를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어머니회에 참석하며, 미야를 괴롭히는 완기를 혼내준다.

『립스틱』에서는 성인의 동일화 의도가 엿보인다. 미야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미야의 변신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열 살짜리 미야의 몸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미야가 변신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회적 동일화라고 간주하기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된 미야가 보여주는 현신성과 천진난만함을 세밀히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어른이 된 미야는 오로지 호야의 엄마 노릇만 충실히 수행한다. 그런데 어른이 된 미야가 호야의 엄마 역할만 하고 싶었을까? 어른으로의 변신이 가능해지면서, 미야는 아이의 세계를 벗어나 성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럼에도 변신 이후에 미야가 경험하는 세계는 평소의 생활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미야는 어른의 몸을 가지고 고무줄 놀이, 페이스 페인팅과 같은 아이 같은 행동만 한다. 미야의 이런 모습은 성인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갖는 현신성과 부정적인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명량함을 갖춘 관념적인 어린이상을 상기시킨다.

이런 점에서 『립스틱』은 ‘어린이의 현실’은 반영되었지만, ‘현실의 어린이’는 괄호쳐진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편모 가정환경에서 미야가 대면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 어린이의 현실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 작품

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형상이다. 미야는 한국 아동 문학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인공 유형이다. 미야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동생을 돌보는 헌신적인 인물이다. 열 살짜리 여자 아이인 미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어른이 되고 싶은 소망은 미야 본연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것은 단지 어른의 짐을 나눠 갖으려는 미야의 착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미야의 변신은 성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몸 되기에 다름 아니다.

한편 미야처럼 성인의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반해, 그렇게 못한 어린이도 있다. 김우경의 『수일이와 수일이』(이하 『수일이』)에 등장하는 진짜 수일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진짜 수일이의 변신은 미야의 그것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진짜 수일이의 변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따져보면, 미야의 변신에 담긴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일이』(2001)는 쥐 둔갑 설화를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작품이다. 『수일이』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에 따라 진짜 수일이와 가짜 수일이가 ‘수일이’의 이름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진가(眞假) 투쟁의 서사 전개를 보인다. 다만 설화에서 쥐의 변신이 주인공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에 반해, 『수일이』에서는 진짜 수일이가 자신의 일탈을 위해 쥐의 변신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2</sup>

32 『수일이』에서는 두 가지 변신 양상이 공존한다. 진짜 수일이의 경우에는 인간-쥐-인간으로의 하강 상승의 변신 테마가 적용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간-짐승-인간의 복합적인 탈바꿈 과정에서 더 낮거나 높은 상태에로의 바꾸어짐과 상응한다. 반면에 가짜 수일이의 변신은 비인간적 대상인 쥐에서 인격적 대상인 인간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상승 전진형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 수일이의 변신은 완결 지속적인 양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단군 신화의 웅녀에서

『수일이』도 『립스틱』처럼 아동에 대한 성인의 사회적 동일화의 압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가짜 수일리로 인해 진짜 수일리가 느끼는 위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짜 수일리는 쥐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영속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진짜 수일리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 위기감은 가짜 수일리가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존재로 의미화된 것에서 비롯된다.

“나는 다 알아!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는 너 같은 아이보다 나 같은 아이를 더 좋아해. 지금 나가서 한번 물어볼래?”

가짜 수일리가 수일리의 눈을 뵈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수일리는 슬그머니 눈을 피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수일이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서 둘 다 내쫓아 버리라고 할 거야!”

가짜 수일리가 학원 가방을 들고 책 나가 버렸다. 수일리와 덕실이는 아무말로 못하고 한동안 방문만 바라보았다.<sup>33</sup>

진짜 수일리와 달리, 가짜 수일리는 학교,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영어 학원 등에 잘 다닌다. 가짜 수일리는 숙제를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른다. 이처럼 가짜 수일리는 성인 중심의 사회적 통제에 순응하는 몸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가짜 수일리의 몸은 진짜 수일리의 본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진짜 수일리는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

---

확인할 수 있듯이, 하지만 본래 상승형의 변신은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 수일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가짜 수일리의 변신은 상승형이긴 하지만 잠정적이며, 또한 본래의 낮은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암시받을 수 있다.

33 김우경, 『수일리와 수일이』, 우리교육, 2010, 99~101면.

짜 수일이 대신에 학원에 가고 숙제도 자발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수일의 행동 이면에는 가짜 수일이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진짜 수일이는 성인 중심의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짜 수일이는 진짜 수일에게 가하는 성인 세계의 위협이다. 그 위협은 가짜 수일이가 진짜 수일의 원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이 성립 가능한 이유는 진짜 수일에 비해 가짜 수일이가 성인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적이기 때문이다. 성인세계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상태가 바로 진짜 수일의 변신이다. 진짜 수일이는 가짜 수일에 의해 쥐로 변신한다. 쥐가 된 진짜 수일이는 각종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인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수일이는 본래 가짜였지만, 현실 세계에서 진짜가 되어버렸다. 반면에 진짜 수일이는 본래 진짜였지만, 가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진짜 수일리와 가짜 수일리 사이의 역전된 관계 이면에는 성인에 의한 사회적 동일화가 도사리고 있다. 진짜 수일의 변신은 성인이 내리는 벌이다. 그 벌은 성인의 사회적 규범을 철저히 따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진짜 수일의 변신은 현실 세계의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몸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성인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 2) 세속화된 성인과 타협을 모색하는 몸

최근 아동문학 작품들은 아동의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열을 올리는 부모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아동이 다가올 미래에 획득하게 될 사회적 지위에서 연관된다. 문제는 성인이 아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욕구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이 아

동의 미래를 현재보다 우선시 할 때, 아동은 성인에 의한 부정적인 현실과 대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 고유의 욕망에서 소외당한 채, 정서적으로 억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중국에 자신의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모가 사라졌다』(이하 『영모』)와 『변신』이다

『영모』와 『변신』의 서사 전개 과정은 대체로 비슷하다. 이 작품들에서 주인공의 부모는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적 면모를 깨닫는다. 비참했던 과거를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얻기 위해, 그들은 아동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한다. 이 같은 부모의 파괴적 관심은 억압과 구속 수준을 넘어서 학대의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의 내면은 심각한 불안 상태에 내몰린다. 그 불안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때, 주인공은 변신과 같은 초현실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

『영모』에서 주인공 영모는 늘상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은 영모 내면의 동요와 불안을 고조시켰다. 영모는 불안정한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 조각에 몰두 했다. 하지만 영모의 아버지는 그의 조각칼과 조각을 모조리 부서버렸다. 하지만 영모는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현실 세계에서 영모의 약하고 여린 몸은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모는 아버지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판타지 세계인 라온제나로 도피하게 된다.<sup>34</sup>

라온제나에서 영모는 노인-청년-영모의 순으로 변신한다. 영모의 변신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세속화된 성인에 대한 반발이다. 영모의

34 영모가 라온제나로 도피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의 갈등이 날카롭게 형성되는 현실세계에서 조화로운 화해를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과 동일시의 대상으로서의 좋은 어른을 접할 수 없을 때, 아동 주인공은 필연적으로 판타지 세계로 도피한다.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10, 256면.

정신 상태는 변신 이전과 변신 이후로 구분된다. 변신 이전에 영모는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 내몰렸다. 하지만 변신 이후에는 이러한 불안 상태에서 해방되어 어느 정도 정신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변신 이전과 이후에서 대비되는 영모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변신의 원인이 결국 세속화된 성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겪지 않았더라면, 영모는 라온제나로 도피해서 변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아버지에게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신체를 지녔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영모는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변신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받은 상처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영모의 변신은 일차적으로 세속화된 아버지에게 대한 반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성인 세계에 대한 화해의 모색이다. 영모는 노인, 청년을 거쳐 다시 영모로 돌아오는 순환형의 변신을 한다. 이러한 변신은 영모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아버지와 화해를 소망하고 있음을 뜻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모는 아버지에게 나름대로 저항할 수 있는 어른의 몸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모는 원래 다시 자신의 몸으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신 이면에는 아버지와 화해를 원하는 영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영모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었던 이유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모는 변신을 통해 성인 세계의 억압과 통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한다.

영모는 변신을 통해 새로운 몸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결국 현실 세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영모가 돌아온 현실 세계

는 결과적으로 보면 바뀐 것이 없다. 라온제나라는 환상 세계에서 아동과 성인 간의 권력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체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모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모의 몸에 있다. 영모의 몸은 현대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일종으로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모』는 영모가 성인 세계와 일종의 타협을 모색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영모의 변신 과정은 『변신』에서 주인공 찬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찬오에게 공부는 자신의 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찬오는 공부에 몰두하고, 그 결과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찬오가 공부에 몰두하는 이유는 동생과 비교해서 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찬오는 동생인 건오보다 키도 작고 예민하다. 건오는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학생인데 반해, 찬오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찬오는 몸에 대한 열등감을 공부로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찬오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공부를 통해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다. 특히, 찬오는 엄마에게 공부 잘하는 특별한 아들이다. 반면에 공부 못하는 건오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 예를 들면, 찬오가 올백을 맞고 돌아온 날, 부모님은 찬오만 데리고 외식을 하고, 건오는 집에 홀로 남겨져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찬오와 건오에 대한 부모의 차별은 일종의 자본주의적 서열화로 간주된다.

그러던 중 찬오에게 문제가 생긴다. 찬오는 전교 1등을 위해 라이벌인 도현이의 시험지를 컨닝한다. 이때 경쟁가 찬오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다. 경쟁가는 찬오의 행위를 트집잡아서 찬오를 괴롭힌다. 이로 인해 찬오는 정신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 찬오의 불안은 전교 1등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거기에 특목중 입학 을 위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엄마의 압박은 찬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 결국 찬오의 불안 증세는 틱장애

와 같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틱장애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경시 대회 준비를 위해 찬오를 몰아세운다. 그 결과, 찬오는 내면의 불안을 극대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북이가 되어버린다.

찬오의 변신에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이 전제된다. 거북이가 되기 전, 찬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틱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공부로 인해 찬오는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거북이가 된 찬오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찬오는 현실 세계의 인간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찬오에 대한 건오의 사랑과 노력으로 인해, 찬오는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마침내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전개를 고려해볼 때, 만약 찬오가 자신의 몸을 긍정했다면, 거북이로의 변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본래 변신은 일종의 불연속적인 상태를 전제한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의 정신은 불안정한 기초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sup>35</sup>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람은 변신을 통해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영모와 마찬가지로 찬오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변신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변신이 부정적인 현실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몸의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sup>36</sup> 하지만 변신을 통해 찬오가 얻은 안정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 찬오의 정상적인 성장은 현실 세계에서 성인의 도움 아래 가능하다. 따라서 영모와 마찬가지로 찬오도 본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으며, 현실 세계에서 아동 주인공은 성인과의 화해를 모색한다.

35 신태수, 「변신 모티프 소설의 양상과 존재론적 성격」, 『국어국문학』125호, 국어국문학회, 1999, 252면.

36 서강여성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2001, 199면.

그렇다고 변신 이전의 몸과 변신 이후의 몸이 완전히 동일한 몸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변신 이후의 몸은 비록 환상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세속화된 성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세속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모와 찬오의 변신은 완전한 사회적 동일화로 수렴되지 않는 반동일화의 의미를 지닌다.

### 3) 자본주의화된 상징적 세계와 결별하는 몸

송미경의 『별레로 만들어 드립니다』(이하 『별레』)에서는 몸을 대한 현대 사회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몸은 문화 자본으로서 관리·정비되어야 할 소비 대상이다.<sup>37</sup> 몸은 자기 관리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기호 형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몸의 상품화로 연결된다. 더구나 의학 및 영양학 등 각종 과학 기술의 발달은 몸의 상품화를 뒷받침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사회상은 아동에게도 투영된다. 아동은 아름다운 몸을 위해 음식을 통제당하고, 식욕을 억눌러야 한다. 그 결과, 아동은 정작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별레』의 주인공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별레』는 날씬한 몸을 위해 별레스쿨에 입학한 주인공들이 별레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인 일권, 윤태, 소희는 뚱뚱한 아동들이

37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에서 '몸'이 소비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는 소비에 대한 자극이 일상화된 소비사회이다. 이제 소비는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의 정체성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인간의 몸이다. 정주원,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9권 1집, 한국소비문화학회, 86면.

38 현대 소비 문화에서 개성이 강조되면서 몸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여 형성될 수 있는 변형가능한 존재양식으로 간주된다. 브라이언 터너, 『몸과 사회』, 몸과 마음, 2002, 33면.

다. 그래서 그들의 엄마인 똥스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인공의 음식 섭취를 통제한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식사 때 “현미밥 한 공기, 시금치나물 한 줌, 콩 열 알” 또는 체중조절용 비스킷만을 먹게 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음식에 집착한다. 음식에 대한 아동의 집착은 몸에 투영된 사회적 질서가 유발하는 일종의 신경증이다. 또한 그것은 날씬함을 강요하는 똥스맘들에 대한 무의식적 반발이다.

주인공과 달리, 똥스맘들은 날씬하다. 그들의 날씬한 몸은 몸에 부여된 자본주의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몸은 부르주아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성적 육체이다.<sup>39</sup> 현대 사회에서 날씬한 몸은 부의 상징이자 타인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예인의 아름다운 몸은 몸에 대한 욕망을 조장한다. 이에 따라 현대인은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몸매 가꾸기에 몰두한다. 똥스맘들이 먹을 것에 집착하는 똥똥한 자녀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똥스맘들의 날씬한 몸은 자본주의적 상징계에 예속된 몸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문제는 똥스맘들이 아름다운 몸에 욕망을 자녀들에게도 투영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주인공들에게 날씬한 몸을 강요한다. 똥스맘의 강요는 그들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아동을 더욱 괴롭고 외롭게 만든다. 그들의 강요에는 아동고유의 욕망과 내면 상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인공들은 자신의 몸을 결함있고 치료해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아동의 몸에 가해지는 똥스맘의 억압은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인의 권위 행사와

39 나병철, 위의 책, 415면.

40 나병철, 위의 책, 415면.

연관된다. 똥스맘은 섭식 방식을 통해 아동의 몸을 금욕적으로 통제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아동에게 성인의 사회적 통치를 내면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몸은 현실 세계에서 어른들의 통제 대상이 된다.

주인공들이 겪는 억압적인 상황은 벌레스쿨에서 완전히 해소된다. 똥스맘들은 확실한 다이어트를 책임진다는 광고에 혹해서 일권, 윤태, 소희를 벌레스쿨에 보낸다. 벌레스쿨에 도착한 주인공들은 각종 음식을 마음대로 섭취한 후, 마지막으로 나비 모형을 달린 상자 속 과자를 먹는다. 그들은 그 과자를 먹고 나비 애벌레로 변신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그들은 벌레로 변신했음에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신 이후, 벌레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등 몸의 능동성을 보여준다. 이런 장면에서는 주인공들이 벌레로 변신한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주인공들이 변신을 통해 낯선 몸에 대한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간에서 벌레로 몸이 바뀌는 하강형 변신임에도, 주인공들은 불안이나 두려움없이 벌레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린 그날부터 미친 듯이 먹어대는 일은 하지 않았다. 배가 고평 때만 나뭇잎을 먹었다.

이따금 새들이 낮게 날면 잎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지만 우리는 벌레 생활이 즐거웠다.

“일권아, 소희야, 여기가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 같지 않나?”

윤태가 나무 위를 기어오르며 말했다.

“호호호, 벌레스쿨에 온 걸 환영한다, 애들아!”

소희가 안내원 목소리를 흉내 내며 말했다.

우리가 나무 위를 오르다 내려와서 흙바닥을 기어 다니며 흙 굴리기를 하며 놀았다.

“우리 빨리 기기 시합 한 판 하자. 밤나무까지 갔다가 먼저 돌아오기.”

“좋아! 내가 실력을 보여줄게.”

윤태는 몸에 힘을 잔뜩 주며 말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내가 제일 날렵할 것 같은데?”

소희가 몸을 길게 늘였다가 몸을 접어 허리를 세웠다 “출발!”

내가 신호를 알 리가 산호랑나비 애벌레가 된 윤태와 노랑무늬물결자나방 애벌레가 된 소희와 배추흰나비 애벌레인 내가 저마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속도로 양배추 밭을 향해 기기 시작했다.

인용한 대목은 벌레스쿨의 결말이다. 결말에서 주목할 것은 벌레로 변신한 주인공들이 더 이상 현실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인공들은 벌레에서 다시 인간으로 변신을 시도하거나 혹은 노력하지 않는다. 이 지점으로 인해 주인공들의 변신은 자본주의화된 상징적 세계에 대한 결별의 의미로 읽힌다. 즉, 몸에 대한 각종 통제를 가하는 현실 세계로 복귀하지 않지 않고, 차라리 벌레스쿨에서 벌레가 되어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벌레스쿨의 시공간적 특성으로 가능해진다. 벌레스쿨은 몸과 관련된 현실 세계의 원칙이 무화되는 환상적 세계이다.<sup>41</sup> 이에 따라 벌레스쿨에서 몸은 더 이상의 차별화의 중심 기제로

---

41 판타지는 현실, 우리 시대의 시간과 공간과 연계되어 있고, 등장인물은 대부분 평범한 아이들이다. 다른 세계로 마술 통로,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술적인 모험은 현실과의 대비를 만들어낸다. 다른 세계는 ‘사실적’ 시간 혹은 일차적 시간과 상관없는 그 세계 고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세계는 이차적 시공간으로써, 그것을 일반적 세계나 시간과 대조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마리아 니콜라에바, 김서정 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1998.

작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주인공들은 뚱뚱한 몸으로 인해 억압받는 현실 세계 대신 벌레의 몸으로 살아가는 벌레스쿨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벌레』의 변신에 부여된 결별의 의미는 비동일화적인 면모를 보인다.

#### 4. 마무리하며

몸은 인간의 존재적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본래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 신체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 정신적 변화가 동반된다. 시간으로 흐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는 인간에게 본래 부여된 자연적인 특성인 것이다. 그런데 자연적 성숙에 의한 인간의 신체적 변화는 그에 대응되는 정신적 변화를 동반하지만, 특정 요인에 의한 인간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인간 자아의 상실이나 분열과 같은 정신적 위기를 가져온다. 따라서 자연적인 연속성을 위반하는 몸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존재적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몸을 중심으로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는 한국 판타지 동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되는 한편, 안정적인 사회 구조와 법칙을 교란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작품 속에서 아동의 변신은 결국 부정적인 현실에 의해 억압된 욕망과 가능성을 표출하는 순간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몸은 억압에 길든 욕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려는 혁명적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아동은 현실세계에서 여전히 성인의 보호를 통한 통해서만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의 몸은 성인에 의해 구속되는 수동성을 떠먼서 동시에 성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능동적인 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현대 판타지 동화에서 아동의 변신을 사회 문화적 압박에 따른 대응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폐쇄의 논의를 참고하여 동일화, 반동일화, 비동일화의 견지에서 변신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변신 모티프가 사용된 현대 판타지 동화 작품을 예시작으로 논의하였다. 아동의 몸과 자본주의 사회와 관계망 속에서 변신 모티프를 탐구한 이 연구가 향후 아동 문학 주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공지희, 『영모가 사라졌다』, 비룡소, 2003.  
 \_\_\_\_\_, 『마법의 빨간 립스틱』, 비룡소, 2008.  
 김리리, 『벌레로 만들어드립니다』, 『하위권의 고수』, 고래가 그렸어, 2014.  
 김우경, 『수일이와 수일이』, 우리교육, 2001.  
 박서진, 『변신』, 바람의 아이들, 2014.

### 2. 논문 및 평론

- 권경옥, 「변신 모티프 동화의 가짜 연구 : 가짜의 유형에 대한 아동 독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기중, 「환타지 동화의 구전설화 수용 양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8, 395~421면.  
 김수철, 「한국 현대 동화의 환상성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자연, 「한국 판타지동화의 환상성 구현 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신태수, 「변신 모티프 소설의 양상과 존재론적 성격」, 『국어국문학』 125호, 국어국문학회, 1999, 251~277면.  
 신현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Ⅱ」, 『초등교과교육연구』 21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5, 61~71면.  
 유은영, 「한국 창작동화의 변신 유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윤소희,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서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강엽, 「동화읽기의 한 패턴: 자기찾기」, 『동화와 번역』 7집,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4, 9~39면.  
 이영미, 「한국동화의 변신모티프에 내재된 원형성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은선,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변신모티프의 구현 양상과 의미」,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제경, 「〈쥐 둔갑 설화〉와 『수일이와 수일이』의 교육적 성격 비교」,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주원, 「품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9권 1집, 한국소비문화학회, 83~101면.  
 조성숙, 「한국 전래동화 연구-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논문, 2000.

- 최금숙, 「한국동화의 변신이야기가 갖는 교육적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윤정, 「'스위트 홈'에 대한 환상과 근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모성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25~255면.
- 함윤미, 「강소천 동화의 환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51~268면.
- 홍성식, 「아동문학의 환상성 실현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1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 홍성태, 「근대화 과정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당대비평』 제25호, 생각의 나무, 2004, 245~255면.

### 3. 단행본

- 강미라, 『몸, 주체, 권력』, 이학사, 2011.
-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
-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04.
-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 서강여성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2001.
- 이재선, 『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 홍은영, 『푸코와 몸에 대한 전략』, 철학과 현실사, 2004.
- 브라이언 터너, 『몸과 사회』, 몸과 마음, 2002.
- 다یان 맥도웰, 『답론이란 무엇인가?』, 임상훈 역, 도서출판 한울, 1992.
- 로지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회 역, 문학동네, 2001.
-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김서정역, 교문사, 2009.
-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가족로망스」, 『프로이트 전집』 9권, 열린책들, 1996.

Abstract

## A Study on the Metamorphosis Motif of Modern Korean Fantasy Fairy Tales

Bang Eu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tamorphosis motif of modern fantasy fairy tale in the network between the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ild 's body. To this end, I discussed about the meaning of the child 's body in modern society and examined the motif of metamorphosis in modern fantasy fairy tales. Next, we analyzed the metamorphosis motif of fantasy assimilation in terms of identification, counter-identification, and disidentific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ent of the subject of the body. In the process of analysis, we focused on how children transformed from modern capitalist society to what kind of bo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ody that meets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 adults', 'the body seeking compromise with secularized adults', and 'the body separating from the capitalistized symbolic world'.

This study analyzed fantasy assimilation while looking for connection between social discourse and metamorphosis motif of body.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in the subject research of children's literature.

■ Keywords: fantasy fairy tale, Pecheux, metamorphosis motif, metamorphosis, identification, counter-identification, disidentification, body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